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7.17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	담 당 자	윤덕기 사무관 (02-2100-2835) 이은진 사무관 (02-2100-2836)	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주형(02-2100-2860)			박석훈 사무관 (02-2100-2864)	

## 제 목 : 최종구 금융위원장, 「은행권 기업·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」 개최

### 1

### 간담회 개요

-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'18.7.13일 「은행권 기업·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」를 개최하여, 기업·가계대출 담당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
-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솔직한 생각,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그간 CEO와 업권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현장의 다양한 고민들을 논의

#### [ 은행권 기업·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개요 ]

- (일시 / 장소) '18.7.13(금) 10:00~11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(16층)
- (참 석) 19명
  - 금융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금정국장, 금정과장, 은행과장, 산업금융과장
  - 시중은행 ①기업·②개인사업자·③가계대출 여신담당 부장
    - ① 국민, 우리, 기업, 산업은행
    - ② 신한, 하나, 농협은행
    - ③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광주은행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본격적인 통화긴축,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·가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,
  - \* 중기대출 부실채권 비율(% , 은행권) : ('15말)1.64→('16말)1.30→('17말)1.11→('18.3월)1.13
  - \* 가계대출 연체율(% , 은행권) : ('15말)0.33→('16말)0.26→('17말)0.23→('18.3월)0.25
-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

## [ 기업대출 관련 ]

- (대출 건전성)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
-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,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업종별·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
- 일부은행에서는 자동차, 플랜트,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 업체인 1차 금속·기계업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
- (동산담보대출)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, 현실적 어려움이 일부 존재한다고 언급
- 이를 해결하기 위해,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, 담보가치 유지,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

## [ 가게 ·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]

- **(대출 건전성)** 참석자들은 현재 가게대출 증가율과 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,
  -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
- **(DSR)** 참석자들은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DSR이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
  - 다만,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,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(예 : 국가유공자대출 등)의 DSR 적용제외,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제도 건의

### 〈참고〉 00은행 DSR 운영현황

- DSR이 100% 이상인 대출은 본부승인 후 취급가능 → 신규 여신중 약 9.8%가 DSR 100%를 초과하여 이중 35%를 승인 거절

- **(신용대출)**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와 관련, 참석자들은 풍선효과가 명확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
    - 특히,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해당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의 40%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,
    -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,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
  - **(전세자금대출)**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
    - 다만,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,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\*을 희망
- \* (예)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시, 가게대출 관리 목표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 등

- **(개인사업자대출)**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 등에 큰 문제는 없으나, 소규모 음식·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
- 특히, 창업 노하우와 준비가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실패하는 확률이 높지만,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하며,
- 창업 노하우 전수, 창업 컨설팅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

### 3

### 향후 계획

-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·추진
-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업권별 기업·가계대출관리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가계·기업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